

북한의 도시 연구*

미시적 비교의 문제들 모색과 방법적 보완 문제

최봉대(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도시는 시장 활성화와 연계된 도시 주민의 지향이나 실천이 지닌 체제이행론적 함의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이 글은 북한 도시 연구 방법으로 미시적 분석의 중요성과 의의를 기술하고 실제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방법적 원칙을 제시한다. 분석 대상으로서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할 때 맥락 중심적 비교 방법과 불균등 결합 발전의 문제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런 미시적 비교 방법에 기초한 분석을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논점으로 도시의 시장적 관계를 매개로 한 ‘국가 - (시장) - 사회’ 간의 다중적 상호 규정관계와 도시 가구들의 사회 내적 분화 문제를 검토한다. 미시적 연구의 중요 자료원인 탈북자의 북한 거주지역 편중에 따른 자료 수집 및 분석상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도 북한 도시 연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유관 분과학문들의 상호 보완적인 자료 수집·분석 방법의 개발, 인적 자료원 활용 방법의 다변화, 도시의 지리적 공간 변형이나 도시들 간 상품 이동 경로의 추적 같은 방법적 보완 작업을 제안한다.

주제어: 북한 도시, 체제 이행, 미시적 분석, 맥락 중심적 비교 방법, 불균등 결합 발전, 시장 활성화, 비공식 부문, 공식 부문, ‘국가 - 시장 - 사

* 이 논문은 2012년 11월 6일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개소기념으로 개최된 “북한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북한의 미래”라는 주제의 학술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하여 게재한 것이다.

1. 이행기 도시 연구의 의의

대다수 사회주의 나라에서 도시는 위계적인 계획화 체계의 말단 집행단위로서 중앙 국가에 순응적이었고, 기능적으로 특화된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는 역할면에서 도시들 간에 대체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¹⁾

- 1) 군수공업 도시나 중공업 도시와 같이 군사안보나 국가전략적 산업의 지리적 배치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건설된 '특수한' 도시들은 도시 주민의 정체성이나 정치적·경제적 조직체계에서 다른 도시들과 적잖은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연방 정부의 통제하에 핵무기나 미사일 또는 다른 무기 개발 및 생산에 특화된 소련 시기 군수공업 도시(속칭 '비밀 도시'나 '폐쇄 도시')의 교육환경, 세대 간 계층 이동, 주민경제생활, 당 조직 등 국가기구의 운영 방식과 주민 통제 실태 등을 검토한 글로 Victor Zaslavsky, *The Neo-Stalinist State: class, ethnicity, and consensus in Soviet society*(Armonk, N.Y.: M. E. Sharpe, 1994), pp. 56~59, 71~76, 130~155; Viktoriia Glazyrina, "Krasnoirsksk-26: a closed city of the defence-industry complex," John Barber and Mark Harrison(eds.), *The Soviet Defence-Industry Complex from Stalin to Khrushchev*(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를 참조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도시지역 공장들이 대체로 종업원인 지역주민의 고용,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의 공급과 집합적 소비재의 제공(주택, 의료, 교육 등), 그리고 비노동시간 여가활동의 조직화 등 일상생활의 재생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온 노동 중심적인 공동체 생활의 구속력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행기 소련의 '철강 도시(중공업 도시)'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철강 도시(대도시의 공업구역)'를 다룬 연구로 Stephen Kotkin, *Steeltown, USSR: Soviet Society in the Gorbachev Er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Alison Stenning, et al., *Domesticating Neo-Liberalism: Spaces of Economic Practice and Social Reproduction in Post-Socialist Cities*(Oxford: Wiley-Blackwell, 2010)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이행기 루마니아와 러시아의 탄광지대 정착촌의 노동문제를 다룬 David A. Kideckel, "Miners and Wives in Romania's Jiu Valley: Perspectives on Post-Socialist Class, Gender, and Social Change,"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Vol. 11, No. 1(2004); Sarah Ashwin, "'There's no joy any more': The experience of reform in a Kuzbass Mining Settlement," *Europe-Asia Studies*, Vol. 47, No. 8(1995)도 참조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자강

그렇지만 체제이행 국면에서 지방정부와 기업 차원의 경제적 분권화나 지방정부의 정치적 재량권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주의 도시는 해당 도시의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제약되는 ‘자본주의적 특성’을 지닌 변이들과 여러 방식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산출해내는 복합적인 ‘과도기적’ 현상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도시는 한 시대의 얼굴이다”²⁾라는 말이 함축하는 것처럼 이행기 사회주의 도시들은 이런 과도기적 현상에 반영되는 일국의 이행 방식, 속도, 양태 등과 관련된 복합적이고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소우주라고 할 수 있다.³⁾ 달리 말하자면 이행기 사회주의 도시는 ‘계획’과 ‘시장’이라는 작동 방식을 달리하는 정치경제적 지배 질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착종되어 있고, 이것이 지리적으로 투사된 다중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행기 도시 연구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공간 안에서 발현하여 발전하며 변형되어가는 ‘과도기적’ 특징들을 비교적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도의 강계, 희천 등과 같은 군수공업도시와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도시의 일상적인 경제·사회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함경북도의 청진과 같은 철강 도시가 이런 유형의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 무산군 소재의 무산광산연합기업소는 기업소의 연합당 책임비서가 군당 책임비서를 겸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업소가 군내 정치·경제·사회생활을 지배하는 광산지대 소도시(행정구역상 읍소재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 브레즈네프(Brezhnev) 정권 시기 소련의 철강 도시 마그니토고르스크(Magnitogorsk)의 도시 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이 도시 당서기의 발언으로 Stephen Kotkin, *Ibid.*, p. xxi에서 따왔다.
- 3) Martha, De Melo and Gur Ofer, “The Russian city in transition: The first six years in 10 Volga capitals”(World Bank working paper 2651, 1999), p.1.
- 4)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 점에서 이행기 도시 공간은 일국적으로 볼 때 불균등 결합 발전의 동학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도시는 체제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그 대리기구를 포함한 집단적 행위자들 간의 이해 갈등의 조정기제나 발전 동학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미시적 연구에 유용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도시는 체제전환의 경험적 지시자로 간주될 수 있는 요인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유용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행기 도시 연구는 미시적 비교 연구의 이점들을 활용하여 일국 차원의 체제전환과 관련된 좀 더 현실 적합한 전망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⁵⁾

아래에서는 이행기 도시 비교 연구를 위한 두 가지 방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에 미시적 북한 도시 연구 현황과 자료원 문제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북한 도시의 미시적 비교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구성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 몇 가지와 비교 연구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자료 활용의 방법적 보완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이다.⁶⁾

5) 현재 북한 도시들을 ‘이행기’ ‘사회주의’ 도시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보기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유 재산권을 부정하고, 국가전략적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반시장적인 계획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민경제’ 부문에 속한 중소 규모 공장·기업소 대다수가 시장에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노동자의 ‘8·3 수입금’을 수납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대다수 도시 가구들도 생계유지를 위해 시장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도시들은 이행기 사회주의 도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계획’과 ‘시장’의 불안정한 병존적 결합상태(‘불완전한 부분적 경제개혁’) 자체를 북한체제 이행의 잠정적인 완성태(일종의 ‘1차 체제전환’의 종결)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북한 간부층의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적 특색’을 지닌 ‘시장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양상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전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이 글은 잠정적으로 후자의 입장에서 북한체제 이행 방식의 제한적 가변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 도시의 이행 문제에 접근한다.

2. 미시적 도시 연구 방법: 맥락 중심적 비교와 불균등 결합 발전의 문제들

사회현상에 대한 미시적 수준의 분석은 거시적 분석이나 중간(meso) 수준 분석과 대비되어 그 의미가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미시적 연구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행위자들의 일상적 실천을 사회구조적 제약의 반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거시적 구조 분석방법과 대비시킬 수 있다.⁷⁾ 미시적 연구는 행위자들의 일상적 실천을 사회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유리된 주제적 행위의 산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 일상생활(사) 연구방법과도 구별된다. 또 사회구조적 제약과 행위자들의 관계를 추상화하여 일반화된 행위자 모형을 구성하려는 합리적 선택이론과도 구별된다.⁸⁾ 이런 맥락에서 미시적 연구를 행위자들의 비물질적 지향이나 물질적 실천을 사회구조적 요인들과의 동태적 연계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일국 수준의 지배구

- 6) 현재까지 축적된 북한 도시 관련 연구의 양적·질적 성과나 자료적 접근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 적합한’ 미시적 비교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본다. 또 미시적 연구의 주제적 특성이나 연구자의 ‘학문적 취향’에 따라 예컨대 비판적 실재론이나 사회구성주의 입장에서 접근할 경우 이 두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일반적’ 분석틀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 7) 그렇다고 해서 미시적 연구가 행위자 수준의 분석에 국한되거나 매몰되는 것은 아니다. 미시-거시의 구분은 분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분석적 구분의 주된 목적은(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에 의해 형성되는) 행위 영역의 동학이(정치체제 변화나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비가시적인 구조적 힘의 작동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8) 1980년대 말 이후 동구 체제이행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일상생활(사) 연구 방법의 ‘편향’은 외견상 안정되고 강고해 보인 동구의 사회주의 체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붕괴하게 된 현실을 설명하려는 실천적 고민과 무관하지 않다. Peter Apor, “The Joy of Everyday Life: Microhistory and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in the Socialist Dictatorships,” *East Central Europe*, Vol. 34~35, No. 1~2(2007) 참조.

조 유지나 변화를 설명하거나, 그와 관련된 유의미한 단서를 도출하는 접근방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⁹⁾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시적 접근에 의해 일국의 중앙 수준의 정치적·경제적 통제가 ‘지방’ 수준의 집단적 행위주체들의 적극적·소극적 저항이나 타협적 적응이나 체념적 수용 태도 등과 맞물려 어떤 식으로 재생산되거나 변형되는지를 연구하는 데 도시는 적합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 북한 체제이행 문제를 북한 도시의 미시적 분석 문제와 연결해서 보고자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체제이행과 관련된 내생적 행위주체 형성 문제를 염두에 둘 때 미시적 북한 연구에서는 도시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불평등체계나 시장적 교환관계망 내에서 유사한 신분적 또는 계층적(계급적) 위치를 점하는 가구(구성원)들로 구성된 집단적 행위자 수준의 분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¹⁰⁾ 미시적

9) 미시적 연구는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행위자들의 집단적 표상이나 또는 이들의 역사적 기억, 본질적인 사회의식, 다중적 정체성을 행위자 중심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도 이런 분석 대상이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매개로 하여 일국의 정치·경제 체제 수준의 구속력에 어떻게 작용(수용)하고 반작용(대응)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뒀다. 예컨대 폴란드나 체코의 사회주의 시기에 ‘미시정치(반체제 지식인들이 집 안의 주방 식탁, 아파트 비밀서점, 지하 살롱에 모여 대안적 정치담론을 모색하는 행위)’가 체제 붕괴라는 거시적 변화의 촉매로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체제 수준의 사회정치적 구속력과의 연계 문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논의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Jeffrey C. Goldfarb, *The Politics of Small Things: The Power of the Powerless in Dark Time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ch. 1~3 참조.

10) 이런 점에서 미시적/중간적/거시적 수준의 분석 대상(단위)을 예컨대 개별 행위자들/공동체·사회집단·조직/국가에 형식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장기간에 걸친 중국의 한 농촌마을의 변화를 중앙 국가의 정책과 마을 주민의 집단적 이해관계 추구 간의 상호 작용적 관계의 틀 안에서 미시적으로 접근한 연구에서 보듯이 집단적 행위자들의 미시적 동학과 지배체제의 거시적 구조 변동 간의 연계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Huaiyin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심층면접조사는 북한의 미시적 도시 연구에서도 유용하다. 왜냐하면 가용 자료의 현실적 제약 위에서 북한체제의 유지 기제에 대한 도식적인 이해를 벗어나 실제적 작동 방식을 밝히려고 할 때 도시 거주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는 현실적으로도 유력하고 중요한 자료 수집 방법이기 때문이다.¹¹⁾

일반적으로 도시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산업지리적 특성, 사회경제적 계층(계급)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주민들의 토착적인 정치적 ‘기질’이 배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도시의 분석 결과를 어느 정도 경험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잠정적으로 일반화시키기 곤란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경험적 일반화의 가능성을

Li, *Village China under Socialism and Reform: A Micro-History, 1948 ~2008*(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참조.

- 11) 경우에 따라서는 정교하게 설계된 면접설문조사도 미시적 연구의 유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 사례로 1990년대 중반 러시아의 두 지방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와 연계된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 면접조사를 통해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주민들의 경제개혁 적극적 지지라는 ‘역설’에 은폐된 주민들의 심리상태의 특질을 밝혀내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James Alexander, “Uncertain Conditions in the Russian Transition: The Popular Drive towards Stability in a ‘Stateless’ Environment,” *Europe-Asia Studies*, Vol. 50, No. 3(1998) 참조. 그렇지만 특히 북한 도시 연구와 같이 표준적 절차에 의한 조사 대상의 표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접조사에 기초한 도시 ‘단위’의 비교 작업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구역행정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 대도시의 경우 상업유통망이나 시장이 발달한 중심 구역과 농장지대인 주변 구역 사이에는 가구들의 주거 여건, 생활수준, 생계유지 방식이나 주민의 사회의식이나 정체성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 다른 도시의 비교 대상으로 이 도시의 어느 한쪽 구역의 거주 경력자들이 집중적으로 선정되는 경우 비교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는 탈북자 자료원의 지역적 편중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모색하고 내용적 정교화를 피하거나, 이론적 가설을 구축하는 데에도 도시들의 비교 작업은 도움이 된다. 동구나 러시아 또는 중국, 베트남, 쿠바의 도시들은 이행기 도시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공통점과 더불어 차별적인 고유한 특성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런 공통적·차별적 특성은 도시들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하는 데 변수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¹²⁾ 그런데 이런 차별적 특성들로 인해 다른 나라들 간에 또는 한 나라 안에서 이행기 도시들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 된다. 더구나 자료 활용이나 축적된 연구 성과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실정을 고려하면 북한과 이 나라들의 도시 비교 연구는 국부적인 경제영역 연구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북한체제나 도시의 ‘특수성’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이행기 다른 나라 도시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는 일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

12) 이행기 동구나 러시아에서 도시 발전에 차이를 초래하는 상이한 유형의 개별 도시의 특수적 요인을 검토한, 다음 사례 연구들은 북한 도시의(미시적) 비교 연구에도 시사점을 준다. 베트남에 있는 두 도시의 부동산이나 주택의 임대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역사적 유제(정치·경제체제의 차이)에 기인한 비물질적인 ‘사회규범’의 차이를 들고 있는 Annette M. Kim, “North versus South: The Impact of Social Norms in the Market Pricing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Vietnam,” *World Development*, Vol. 35, Iss. 12(2007) 참조. 헝가리 내의 지역 간 경제성장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구체제 지배 엘리트의 계급적 전화(자본가 계급화)라는 내생적 요인과 외국자본의 투자라는 외생적 요인의 결합, 즉 ‘계급적 연합세력’ 형성 여부라는 변수를 들고 있는 Laszlo J. Kulcsar and Tamas Domokos, “The Post-Socialist Growth Machine: The Case of Hunga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29, No. 3(2005) 참조. 또 헝가리에서 구체제의 국가발전 전략의 산물인 도시 산업 구성의 차이(인적자본 집중투자 지역과 중공업·집단농장 지역)라는 ‘경제적 유제’ 요인이 외국자본 유치에 영향을 미쳐 두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David L. Brown et al., “Leading Sectors and Leading Regions: Economic Restructuring and Regional Inequality in Hungary since 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1, No. 3(2007)도 참조.

는다고 간주하는 것은 생산적인 접근이 되지 못한다. 주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북한의 현실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잡다한 자료들’에서 얻을 수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연구 성과들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도시의 ‘특수성’을 ‘일반이론’의 변형적 구성이나 확장이라는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비교 작업을 위해 두 가지 방법적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맥락 중심적인(contextualized) 비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나 과정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경계지워진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이런 맥락의 제한적 규정성을 고려하는 것은 비교 연구의 설명력을 제고해줄 수 있는 한 방안이기 때문이다.¹³⁾ 다른 하나는 불균등 결합 발전의 문제들을 분석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기발견적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다.¹⁴⁾ 이 문제들은 일국 내 도시나 지역 간에 주요

13) Paul, Pierson “Epilogue: From Area Studies to Contextualized Comparisons,” G. Ekiert and S. E. Hanson(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ssessing the Legacy of Communist Rul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p. 356~358 참조. 이행기 형가리에서 실업 증가와 주민의 수용태도 간의 관계를 산업 구성의 차이와 비공식 부문의 활성화 정도를 중심으로, 동독 등 다른 지역·도시와 맥락 중심으로 비교한 유의미한 연구로 다음을 참조. Phineas Baxandall, “Postcommunist Unemployment Politics: Historical Legacies and the Curious Acceptance of Job Loss,” G. Ekiert and S. E. Hanson(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ssessing the Legacy of Communist Rule*.

14) 원래 불균등 결합 발전 개념은 지구적 또는 일국적 수준에서 다른 산업 부문 간의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사회적 모순이 노정되고(‘불균등 발전’), 이 부문들이 단일한 사회체계의 일부로서 기능적으로 통합된 상태(‘결합’)를 지칭한다. 그리고 불균등한 지리적 발전과 부문 간의 계급 갈등을 초래하는 불균등 결합 발전은 자본주의 팽창의 불가결한 동인이라고 간주된다. Anthony P. D’Costa, “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 Understanding India’s Software Exports,” *World Development*, Vol. 31, Issue 1(2003), p. 212. 여기서는 트로츠키(Leon Trotsky)와 만델(Ernest Mandel) 등에 의해 발전된 이 개념의 ‘법칙’적 지위와 기능주의적

영역에서 전개되는 불균등 발전 양상의 이행론적 시사점을 일국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맥락 중심적인 비교가 공시적 차원의 비교에 중점을 둔다면, 불균등 결합 발전은 통시적 차원의 비교에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가공급제의 해체에 따른 시장 활성화의 조건이 모든 도시에서 존재한다고 할 때 도시 간 시장 활성화 양태의 차이를 가져오는 도시 내재적 또는 외재적 요인들을 맥락 중심적인 비교에 의해 규명할 수 있다. 또 도시 간 차별적인 시장 활성화의 결과로서 도시 가구들의 경제적 계층 분화 양태가 상이한 것도 맥락 중심적인 비교 작업에 의해 분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시들 간에 다르게 진행되는 가구들의 경제적 계층 분화의 양태나 속도에 따라 사회적 갈등 관계가 가시화되는 방식이나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할 때, 도시들의 이런 불균등한 발전 양태가 일국 수준에서 정치적 불안정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상호 결합하는 경향이 우세한지 그렇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불균등 결합 발전의 문제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맥락 중심적 비교 방법과 불균등 결합 발전 문제들의 결합에 기초한 미시적 도시 연구는 이행기 사회의 체제이행 진행 방식이나 발전하는 자본주의의 유형적 특질을 검토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도시들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이, 예컨대 “(단기적/장기적으로) × (수렴/분기하는)” 2 × 2 경

합의를 배제하면서, 주로 산업 부문에 한정하여 적용된 이 개념을 이행기 일국 도시들 간의 정치적 분권화, 산업 부문 발전, 경제적 계층 분화, 집단적 정체성 형성 등과 같은 주요 영역에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서 사용한다. 이 개념의 법칙적 정식화와 후발 자본주의국의 단계 ‘도약’론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Marcel Van der Linden, “The ‘Law’ of 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 Some Underdeveloped Thoughts,” *Historical Materialism*, Vol. 15, Issue 1(2007).

우의 수와 같은 식으로 유형적으로 구분되는 경향을 판별하고, 이 경향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일국 수준에서 이행론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미시적 북한 도시 연구 현황과 자료원의 제약 문제

이행기 북한 도시들의 미시적 비교 연구는 쉬운 작업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자료 수집 문제가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거주민들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에 힘입어 북한 도시의 미시적 연구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런 모색의 연장선상에서 수년 전에 접경지역 세 도시(청진, 신의주, 혜산)에 거주했던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에 기초하여 수행된 비교 연구가 현재까지 거의 유일한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⁵⁾ 따라서 미시적 북한 도시 연구의 경향적 추세, 질적 수준, 비교 방법의 문제, 그리고 연구의 전망적 방향 등을 논의하기에는 연구 성과의 축적이 빈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다.¹⁶⁾

15)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한울, 2004);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한울, 2006);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한울, 2007) 참조. 이 연구 이외에도 비교·분석 작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특정 도시나 도시 일반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도 있다. 예컨대 이우영 엮음,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서울: 한울, 2008); 차문석·김지형, 『북한의 공장 및 노동 실태 분석』(서울: 한국노동중앙연구원, 2008); 정은이, “북한의 국경지역 시장에 대한 연구: 회령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2011) 참조.

16) 세 도시 비교 연구 작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논평은 이우영,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8권 제1호(2005), 135~137쪽

북한과 관련된 다른 부문 연구들과 비교할 때 미시적 도시 비교 연구의 성과가 미약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많이 지적되어온 자료 수집 문제는 다른 부문 연구들도 공히 직면해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다.¹⁷⁾ 미시적 도시 비교 연구의 부진 문제를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짚어볼 수 있다.

여타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자료원의 역할을 해온 국내 탈북자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조사 자료는 북한 사회의 경험적 현장성을 증시해온 일부 연구들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자료원은 좀 더 심화된 질적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그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제약은 전국적 수준에서 북한 ‘사민(일반 주민)’이나 간부층을 ‘표준적으로’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자료원의 속성 관련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자료원이 접경지역(‘국경연선’) 2개 도(道) 정도의 일부 시·군 지역 거주민에 편중되어 있고, 성별 구성에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직업군별로 볼 때 ‘무직·부양’이나 (최)하층 생계유지형 ‘장사’에 집중되어 있고(따라서 실제 가동 중인 기업소나 공장 등의 현직 노동자나 간부 출신이 매우 드물고), 학력 면에서 중학교 졸업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더구나 최근 수년 동안

참조

- 17) 북한 도시들의 자연·인문·산업지리에 관한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편찬된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전20권(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4~2005)는 기초적인 예비조사에 유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 북한 중앙정부의 대중선전매체 자료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방 일간지 등의 자료적 활용 가치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특정 도시와 관련된 간략한 연대기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도시 주민이라는 행위주체의 일상성의 재생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류의 공식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에는 국내 정착자가 북한 잔류 가족을 입국시키는 방식이 늘어남에 따라 자료원의 ‘대표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자료원의 이런 속성 관련 편중 현상으로 인해 미시적 북한 도시 연구는 접경지역의 몇몇 도시에 불가피하게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 일부 도시들은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국내외 물류 연결의 중심 거점이자 상업 도시인 신의주나 군수 도시인 강계의 경우에는 이런 자료원마저도 태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실 있는 연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개인 신상보안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런 불완전한 자료원의 접근마저도 훨씬 더 까다로워졌고, 그에 따라 다수의 특정 지역 출신자들에 대한 체계적 조사작업도 쉽지 않다. 자료 수집과 관련된 이런 난점들에 비춰보면 몇몇 도시들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 연구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특정 도시들의 비교 연구에 한정시키지 않을 경우 탈북자 조사에 기초한 적지 않은 실증적인(그리고 일부 미시적) 연구 성과가 나오는 반면에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농촌의 다중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자료 수집의 이런 일차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자료원의 속성상 편중 문제는 여전히 분석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탈북자 설문조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의 통제에 따른 특정 응답 분포의 유의미한 정도를 검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이 문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¹⁸⁾ 이는 조사 대상자의 표집 자체가

18) 필자가 참여했던 한 공동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도 이런 현상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탈북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사회계층적 위치(비공식 수입을 포함한 개인의 실제 수입)와 ‘개인 사업’의 합법적 허용에 대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조사 외적 환경 때문일 수 있다. 또는 미시적 연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북한 사회의 과도기적 특성의 반영일 수도 있다.¹⁹⁾

이와 같이 자료원과 관련된 분석의 장애 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탈북자 조사에 기초하는 북한 도시지역의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에서 자료 해석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이런 자료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자료원의 보완적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한다. 뒤에서 이 두 가지 점을 미시적 도시 연구의 방법 문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4. 미시적 북한 도시 연구의 문제틀 모색: ‘국가-(시장)-사회’의 관계

1) 도시 비공식 부문의 시장적 관계와 공식 부문의 분절적 결합 문제

사회주의 사회에서 도시의 공식 부문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화에 의해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통제되는 합법적인 경제활동의 공간이었다. 이와 달리 비공식 부문은 대체로 개별 가구들이 생계유지나 사

지지 정도의 응답 분포나, 또는 출근 강제의 근거로 이용되는 국가의 직장 배치의 철폐 여부에 대한 평가 관련 응답의 분포 간에 예상과 달리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봉대 외, “북한이탈주민 범의식 사례 연구”(통일부 연구보고서, 2011), 44~47, 50~52쪽 참조.

19) 5절에서 북한 도시 연구의 방법적 보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볼 것이다.

적 이익을 위해 부족한 소비재 물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국가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불법적인 경제활동의 공간이었다. 이때 부분적으로 시장적 관계에 기반을 둔 비공식 부문은 공식 부문을 주변적으로 침식하거나 대체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공식 부문을 보완하는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²⁰⁾ 국가는 계획화 체계를 통해 경제 전반을 지배할 역량을 지니고 있었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헤게모니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의 존재는 국가 정책에 의해 상대적으로 규정되었다.²¹⁾ 이는 경제개혁 이전의 중국, 베트남이나 체제전환 이전의 동구나 소련, 그리고 1980년대까지의 북한에 대체로 해당된다.

이와 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도시의 비공식 부문은 공식 부문과의 관계나 내부적 구성에서 상당히 복잡한 양태를 노정한다. 북한은 경제개혁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여전히 중앙집중적인 계획경제의 틀을 고수하고 있지만, 소비재 부문의 국가공급체계와 인민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군수 부문의 일부 공장·기업소의 계획화 체계까지도 대체로 붕괴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도시 가구들은 부족한 소비재 물자 구득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비공식 부문에 의존해

20) 여기서 ‘시장적 관계’는 사회 내 구조적 요인이나 다른 제도적 장치들과의 상호 규정적 관계 속에서 ‘시장의 동태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맥락에서 사용한다. 이와 좀 다르게 ‘시장’은 사회의 공식적 체계 내에서 제도나 행위 주체 같은 체계의 다른 구성 부분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상대적 위상을 함축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물론 이 두 용어를 엄밀한 구분 위에서 상호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21) Johan Rasanayagam, “Informal economy, informal state: the case of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Vol. 31, Iss: 11/12(2011), p. 682; Alena Ledeneva, “Blat and Guanxi: Informal Practices in Russia and Chin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50, No. 1(2008), p. 131 참조.

야만 한다. 또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자재, 설비, 전력 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대규모 공장·기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공장·기업소들은 액상계획을 수행하고, 자체 운영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시장적 관계에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2002년의 ‘경제관리 개선조치’나 그 뒤의 ‘종합시장 개설조치’는 공장·기업소나 개별 가구 같은 도시 경제주체들의 불법적인 시장활동의 일부를 합법화해서 공식 부문에 편입시키기 위한 사후적 조치였다. 그 후 국가에 의한 시장의 축소나 폐쇄, 공장·기업소의 재정관리방식의 변경 등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었지만 이 ‘조치’들의 기본틀은 현재 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는 특히 주민 소비생활과 관련해서 도시의 비공식 부문이 공식 부문에 대해 더는 부차적으로 규정되는 위치에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두 부문 간의 이런 관계 변화와 상호연계의 단절이 어렵게 된 점을 다음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국가의 공식 부문이 아닌 합법적 사경제 부문인 도시 소비재 시장의 운영 방식을 보면 이 점이 잘 드러난다. 도시 시장에서는 생계유지형 소매상인들의 상품 판매만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있고, 해당 상품의 생산이나 수입, 운송, 도매시장과의 연계 등 유통 관련 규정은 모호하게 되어 있다.²²⁾ 따라서 합법적 사경제 부문은 불법적인 비공식 부문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 상품의(생산) - 유통 - 판매 과정에서 합법적 부문과 불법적 부문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 비추보면 도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부문의 시장

22) 예컨대 시장에서 중국산 ‘공업품(소비재 공산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형 승합차 등을 이용해서 이를 대량으로 운송하거나 시장에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명시적인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기관에 단속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화물은 몰수된다.

적 관계가 사실상 국가 공식 부문의 소비재 공급체계를 대체하다시피 하고 있는 셈이다.²³⁾

공장·기업소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지배인이 ‘능력껏 벌어서 종업원들을 먹여 살리고’ 부분적으로라도 액상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생필직장이나 8·3작업반을 중심으로 시장에 연계된 ‘더벌이’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렇지만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속품 등을 확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부과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장·기업소의 책임간부들은 이른바 ‘돈주’라고 불리는 ‘유사 상인자본가’에게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 받아 생산된 제품의 일부를 이들에게 넘겨주거나, 종업원들의 결근을 묵인하고 ‘8·3 수입금’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불법적인 수입 창출 방법에 의존한다. 특히 경공업 부문에서 활발하지만 이처럼 유희 상태에 있거나 부분적으로 가동되는 공장·기업소들은 액상계획 수행이나 생산을 위해 비공식 부문과의 불법적인 시장적 연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²⁴⁾ 소규모 공장·기업소들은 비공식 부문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명목상으로도 공식 부문의 일부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도시 비공식 부문의 시장적 관계는 공식 부문의 일부를 대체한다고 볼 수 있다.

비공식 부문과 지방 국가기관들의 관계에서도 비공식 부문의 중요

23) 살림집(주택)의 경우에도 도시의 국가기관과 기업소의 국가공급체계가 붕괴된 이후 살림집 사용권(입사증)이 국가의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개인들 간에 거래되고 있다. 또 심각한 도시 주택난으로 인해 방 사용료를 현금이나 현물, 또는 노동 서비스 제공으로 지불하는 월세 ‘동거살이’가 확산되고 있다.

24) 아마도 평양의 일부 지방산업공장이나 소규모 중국 투자를 받아 가동하는 접경 지역 일부 도시의 소수 공장들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산업공장들은 실제로 가동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액상계획 수행이나 종업원의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이 공장 ‘가동’과 지배인 업무 실적의 평가 근거로 간주된다.

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평양을 비롯한 도시의 시·구역 당정기관들은 직원 월급 등 현금이 소요되는 일상적인 운영비를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장세(시장 사용료)에 지방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한다.²⁵⁾ 또 십수 년 동안 비공식 부문은 지방 당정기관 중하급 간부들의 생계유지와 상급 간부층의 사적 축재를 위한 수탈의 원천이 되어왔다.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시장(marketplace)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비공식적인 시장적 관계는 준제도화가 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일반 주민과 간부층을 포함한 도시 가구들의 사회적 재생산에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을 매개로 한 도시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관계는 공식 부문의 비소비재 산업 공장·기업소를 고려할 경우 좀 복잡한 양상을 띤다. 도시 내의 주요 군수공장, 대기업소(공장)의 군수일용공장(직장) 그리고 중공업 부문 공장·기업소는 비공식 부문과의 연계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 점과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 국가기관이 일상적 운영비를 조달하고, 간부들이 축재를 위해 비공식 부문을 수탈한다는 것은 시장적 관계가 도시 비공식 부문의 성장을 추동하여 공식 부문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이런 실태는 시장적 관계에 의한 도시 공식 부문의 침식 문제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시사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도시 연구의 과제는 도시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간의 이런 복합적인 착종관계의 정치경제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25) 2000년대 초반에도 도시 시장의 장세가 해당 지역 연료보장자들의 연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최근 탈북자 증언에 비춰 보면 아마도 시장관리소가 국가기업소체제로 전환되면서 장세가 공식적으로 지방 당정기관의 재정수입원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2) 시장 잉여의 국가 이전 기제와 ‘국가-시장-사회’ 관계의 분화: 불균등 결합 발전의 관점

북한 체제이행의 거시적 전망 도출이라는 문제의식에 연계해서 이와 같은 도시의 정치경제적 역학관계 문제를 미시적 수준에서 검토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을 세 가지 정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한 도시의 시장 활성화를 앞에서 언급한 불균등 결합 발전의 문제들에 의해 전국적 수준의 동학을 평가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별 도시들에서 시장적 관계는 산업지리적 구성, 자연자원의 보유, 도시 간 운송 인프라 연결의 효율성과 같은 도시의 내재적 요인이나 중국의 시장경제권의 지리적 근접 정도와 같은 외재적 요인에 따라 상대적으로 촉진되거나 지연되면서 불균등하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소비재 시장의 활성화 문제를 맥락 중심으로 비교할 때, 국경지역 일부 도시들은 중국의 ‘시장경제’ 영향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억압적 통제나 도시 내 공장·기업소들의 생산 역량이 매우 취약함에도 시장의 ‘자생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²⁶⁾ 또 교통 요충지에 해당하는 물류 중심 도시지역이나 수출 외화벌이가 활발한 도시지역에서는 계절적 임시 노동시장의 형성이나 도시 경제의 부분적 달러화(달러라이제이션, dollarization)에 의해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중공업이나 군수공업이 집중된 도시들은 노동 규율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작용하고, 공장 유출 자재가 가내 수공업의 발전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도시의 시장 활성화가 촉진될수록 가구들의

26) 2009년 말의 ‘화폐교환’ 이후 급속히 위축된 시장의 복원 시점이 내륙지역 도시에서 더 빨랐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경제적 계층 분화는 더 급속하게 진행하거나 양극화하는 양상을 띤다. 이렇게 될 경우 해당 도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국가에 의한 훨씬 더 강도 높은, 그리고 때로는 폭력적인 시장 통제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처럼 전국적인 판도에서 볼 때 북한 도시들의 시장적 관계는 시간적 흐름 속에서 여러 요인이 불균등하게 결합·발전하면서 복합적인 양상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북한 도시의 지방 국가기관과 시장의 관계 설정을 위한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고 경험적 분석을 좀 더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의 관계를 길항적인 상호 의존관계나 후자에 의한 전자의 점진적 대체나 침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도시의 정치경제적 변형의 동학을 포착하기가 어렵다.²⁷⁾ 왜냐하면 시장 중심적인 비공식 부문과 ‘계획’ 중심적인 공식 부문 간의 관계를 경제적 지배력의 상대적인 우세 정도를 중심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경우,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적 지배력의 확대 가능성이나 비공식 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경제 외적인 시장 통제기제에 의해 제약되는 면을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장이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실재라는 인식하에 경제적 행위자들의 합리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대신에 불평등한 정치적·경제적 자원을 보유한 경제주체(개인, 집단, 기관) 간의 교환행위를 통해 이미 생성된 잉여의 화폐적 가치 실현이나 분할 전유가 이루어지는 장이나 사회적

27) 부문별 실패시장의 유형에 따라 두 부문 간에 다양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작업은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도시 내의 동태적 관계를 보여주기에는 제한적이다.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9), 4장 참조.

연결망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²⁸⁾ “도시의 경제적 상층 가구(소규모 ‘유사 상인자본가’ 집단)/공장·기업소 → 중상급 간부층/지방 국가기관들 → 중앙의 국가”로 경제 외적(강제적) 수단에 의해 잉여가 이전되는 기제를 잉여의 ‘(생성) - 실현 - (분할)전유 - 처분’의 순환 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비공식 부문의 지배적 주체인 경제적 상층 가구의 제한적인 정치적·경제적 위상이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또 이렇게 접근할 때 도시 시장 활성화의 행위주체적 동력이 형성되는 기제나 경로 문제를 규명하고, 북한의 체제전환 방식이나 특정한 유형의 자본주의 성립 가능성에 관한 좀 더 현실적인 전망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국가-시장’ 간의 관계 분석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미시적 북한 도시 연구의 중심축을 ‘국가-(시장)-사회’ 간의 관계 분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³⁰⁾ 북한의 사회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여전

28) 여기서 ‘잉여’는 한 사회의 개별 가구의 ‘사회적’ 재생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화를 초과하여 생산되는 여분의 재화라는 느슨한 의미로 사용한다.

29) 특히 경제적 상층 가구에 의한 ‘상업자본’의 축적 가능성이 이들에 대한 사법보안기관의 물리적인 거세(경제 외적 강제력의 행사)와 잉여의 국가 귀속에 의해 차단되는 점이나 간부층에 의해 분할 전유된 잉여가 외화의 축적 형태로 변환되어 순환 과정에서 퇴장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출 외화벌이가 활발한 도시지역에서 ‘특수 단위’ 국가기관에 의해 전유된 잉여의 많은 부분이 중앙으로 이전되어 군수산업 등에 투자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유력한 경제주체들에 의한 잉여 축적 가능성이 크게 제약되는 점 등이 주된 분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0)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사회를 서구의 자유주의적인 정치적 전통 속에서 형성된 그람시(Gramsci)류의 시민사회나 시장경제의 위협에 대응하여 자기보호적 사회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폴라니(Polanyi)류의 사회와 유사한 맥락에 위치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자본을 기반으로 한 사회세력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고, 주요 경제적 자원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강제력의 독점적 보유를 기반으로 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을 복원한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체제이행 주체를 국가에 대립적인(또는 국가를 포획할 수 있는) 사회의 자본세력 형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서구 중심적 분석들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은 Gerald M.

히 식민화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사회’ 관계에 적지 않은 균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사회 지배의 안정적 재생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좀 더 주의 깊은 검토가 요구된다. 먼저 시장을 매개로 한 ‘국가-사회’ 관계(I)의 변화 문제를 살펴보면, 도시 가구들은 시장 활성화에 따라 사회 내에 새롭게 형성된 경제적 불평등체계 안에 배열된다. 그에 따라 계층적 위치가 다른 도시 가구 간에 경제적 이해 갈등이 발생한다. 또 시장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의 수탈로 인해 국가와 대다수 도시 가구 간에도 경제적 이해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시장으로 인한 도시 가구들이 처한 이런 이중적 상황 때문에 사회는 내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열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와 대다수 가구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해 있는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데 시장에 연계된 이중적인 경제적 이해 갈등만이 도시 가구들의 사회적 정체성 형성이나 행위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회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침투에 따라 생성된 ‘국가-사회’ 관계(II)도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II) 관계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정치적 불평등체계 내 도시 가구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에 의해 규정된다. 그렇지만 이 관계는 사회조직들을 통한 각종 ‘세외 부담’ 명목의 현금·현물 수탈에서 발생하는, 국가와 대다수 가구들 간의 경제적 이해 갈등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그러므로 시장을 매개로 하지 않은 ‘국가-사회’ 관계(II)에서 사회는 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지 면에서 신분집단별로 분화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에서는 대다수 가구가 국가와 대립하는 처지

Easter, “The Russian State in the Time of Putin,” *Post-Soviet Affairs*, Vol. 24, No. 3(200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다. 종합적으로 보면 사회에서는 국가나 시장과의 관계에서 다중적으로 얽힌 개별 가구들의 정치적·경제적 이익 추구가 이루어진다.³¹⁾ 따라서 도시 가구가 국가나 시장에 대해 어떤 사회적 정체성이나 행위 양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회 내적 변화가 국가의 사회 지배(‘국가-사회’ 관계(I), (II))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³²⁾

5. 미시적 북한 도시 비교 연구의 방법적 보완 문제

1) 유관 분과학문들의 상호 보완적 분석의 필요성

앞에서 언급한 자료원과 관련된 분석상의 장애 요인들은 북한 사회

-
- 31) ‘간부-사민’ 또는 시체말료(‘양반-쌍놈’이 아닌) ‘양놈-쌍놈’ 간의 위계적 관계로 표상되는 ‘정치적 신분’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불평등체제와 시장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불평등체제가 결합하면서 기존 불평등체제가 부분적으로 변형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제11권 제2호(2008) 참조.
- 32)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09년 말의 화폐개혁은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북한의 국가는 화폐개혁에 의해 고갈된 국가재정을 보전한다는 주요 목적을 부분적으로만 달성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은닉된 외화 환수에는 적잖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화폐개혁의 이런 성과는 국가가 여전히 경제 외적 강제력에 의존해서 사회에 침투하여, 시장과 연계된 사회의 경제적 자원을 상당 부분 추출하는 데 성공할 정도의 역량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화폐개혁 이후 사회 내에 불만이 비등해지자 도시의 소요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도급 단위로 기동타격대가 창설됐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국가-사회’ 관계에 질적인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지만, 그와 더불어 시장에 연계된 도시 가구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경제개혁 압력 형성 가능성을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것을 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 과도기적 특성이 반영된 문제일 수 있다는 방향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 설문조사에서 연구자가 제어할 수 없는 표집 문제점을 일단 차치하고 볼 때,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응답자들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사회정치적 의식이나 평가적 태도, 행위 양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앞에서 지적했다. 이 문제는 시장이 주민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음에도 시장 참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서 중장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북한의 시장적 관계와 그 근저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통제기제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³³⁾ 왜냐하면 ('유사 상인자본가'의 불법적 화폐재산의 폭력적 몰수나 영세 자영상인에 대한 '보호세' 갈취와 같은) 시장적 거래행위에 거의 항상적으로 개입하여 수탈하는 도시 국가기구의 작동, (독재자의 '방침' 정치에 따른 정책적 비일관성의 일상화나 현지 지도 노정에 포함된 지역들의 운송·통신의 예기치 못한 차단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요인들, (특히 외화벌이사업의 개인 투자와 관련된 사기 협잡과 같은) 법적 안정성 결여에 따른 시장 거래관계의 신뢰 부재 등은 시장 참가자들의 입지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실존적인 차원의 불안정한 처지에 기인하는 응답자들의 자기분열적인 다중적 정체성이 조사결과에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이런 추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그런 검토의 연장선상

33) 이행기 러시아 사회를 사례로 들어 위계적 지배 질서 내에서 한 집단은 다른 집단과는 구별되는 그들만의 '시간 지평(현재의 경제적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할 수 있는 미래 시점까지의 시간 길이)'을 갖게 되는데, 사회적 안정에 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질수록 그들의 '시간 지평'은 짧아진다는 지적도 참고할 수 있다. Vladimir, Shlapentokh, "The Short Time Horizon in the Russian Mind,"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8, No. 1(2005).

에서 응답자들의 다중적 정체성이 도시의 기존 지배 질서의 재생산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유관한 분과학문들의 이론적 자원과 분석방법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컨대 ‘반시장적’ 정치체제의 지배적 담론, 인적 관계망, 개인적 동기, 인성 등이 개인들의 사회의식이나 행위양식의 질적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담론 분석이나 전기(傳記)의 텍스트 분석과 같은 방법을 복한 도시 연구에 시험적으로 적용해서 그 유용성을 확인해볼 수도 있다.³⁴⁾ 또 사회심리학이나 보건의료학 또는 문화인류학 등의 문제의식과 분석방법 등을 활용해서 복한 도시들에서 확산되고 있는 음주, 흡연 등 물질문화와 매춘이나 마약 관련 범죄문화를 시장 활성화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관련해서 검토하는 작업도 고려할 수 있다.

연구방법적 측면에서 복한 도시 주민의 일상적 삶의 현장에 대한

34) Sally Sambrook et al., “A Biographical Approach to Researching 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Processes in a Small Business Context,” Bangor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 No. 11/00et(<http://ssrn.com/abstract=1952667>, 2011). 여러 명의 전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집단적 전기(면접)조사’라고 볼 수 있는 작업의 사례로 동독 출신 고졸 청년들의 통독 전후 ‘삶의 계획화’의 변형 체험을 분석하는 다음 문헌도 참조할 수 있다. Feiwei Kupferberg, “Transformation as Biographical Experience: Personal Destinies of East Berlin Graduate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Acta Sociologica*, Vol. 41, No. 3(1998). 그리고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여성 생계책임자 한 사람의 가족 생계유지를 위한 일상적인 ‘다양한’ 경제활동(국가 부문과 사적 부문에서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해 화폐화되거나 비화폐화된 형태의 수입을 창출하는 행위)과 관련된 세밀한 수집자료 분석을 작업의 중심에 놓고 여기에 수십 명의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결합해 러시아 이행 과정에서 도시 경제적 하층 가구들이 겪게 되는 일상적 삶의 질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식과 같은 조사기법의 사용도 참고할 만하다. Marianna Pavlovskaya, “Other Transitions: Multiple Economies of Moscow Households in the 1990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94, No. 2(2004) 참조.

참여관찰이나 현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런 분과학문적(융합적) 접근의 적용 가능성을 미리 기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접근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한 ‘현지’ 여성들의 사회적 정체성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탈북 여성이 아닌, 장사나 단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중국에 나온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연구 외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하지만, 인류학적 현지조사의 공백을 메꾸려는 시도로서 유용하다.³⁵⁾ 탈북자들의 국내 적응과 관련한 ‘정신보건’의 경험적 지표들(강박관념, 적대감, 편집증 등)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³⁶⁾ 유사한 사회심리학적 조사방식을 북한 도시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통제 효과의 추세를 분석하거나, 또는 시장 의존적인 생계유지 방식에서 비롯되는 심리학적 병리현상의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는 데 시험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³⁷⁾

35) 이런 작업의 예로 노귀남, “여성의 공간경험 확장과 의식 변화,”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서울: 통일연구원, 2010) 참조.

36) 예컨대 노대균,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43~50쪽 참조.

37) 중국의 대약진운동 시기의 집단적 트라우마에서 기인하는 개인들의(신경쇠약 증으로 신체화되는) 우울증 임상조사를 통해, 억압적인 정치적 통제와 같은 사회구조적 압력에 대해 집단적인 저항의 표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인적 적응이 사회심리적·신체적 병리현상으로 표출된다는 클라이만(Arthur Kleinman)의 연구는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된다. Arthur Kleinman, *Social Origins of Distress and Disease: Depression, Neurasthenia, and Pain in Modern China*(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북한 도시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며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 무속신앙 문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다.

2) 인적 자료원의 제한성과 보완자료 활용 방법의 모색

자료원과 관련된 분석상의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 대상자의 선별에 내재해 있는 편향 문제는 입국 탈북자들의 접경지역 거주 쏠림 경향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제약이라고 봐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 이는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자본, 기술, 상품, 정보 등 외부 자원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도시로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접경지역 도시들의 비교 연구에 기초한 도시지역 시장 활성화의 이행론적 함의를 북한 도시들 전반에 일반화해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단적인 예로 내륙지역 도시 주민과 비교되는 접경지역 도시 주민의 ‘시장 지향적’ 경제활동의 차별성을 들 수 있다. 주기적인 비사검열, 밀수일반 상품, 통제 품목, 마약 등), ‘인신매매(젊은 여성의 탈북 지원과 관련된 유상 용역 제공)’ 등과 같은 범죄적 시장 연루활동의 일상성과 그에 따른 주민 사회의식의(정치적 의미와 탈규범적 의미가 중첩된 이중적인 의미에서) 상대적 급진화가 이에 해당한다.³⁸⁾

38) 응답자 대다수가 함경북도와 량강도 출신에 해당하는 탈북자 설문조사에서 ‘생계유지나 돈벌이 수단으로 마약의 제조·밀매’를 ‘용인하는’ 평가가 많이 나온 것은 접경지역 주민들 사회의식의 ‘이중적 급진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최봉대 외,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52~53쪽 참조. 내륙지역 도시 주민에 비해 ‘선도적이고 급진적인’ 접경지역 도시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 사적 경제활동의 특징, 복잡한 사회적 정체성 등이 북한 체제이행과 관련하여 출 수 있는 시사점은 박형중 외,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1), 4장 참조.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당국의 공식 선전과 관련해서 국경연선 ‘일부’ 주민이 보여준 부정적 평가(국내 인터넷 대북매체들과 연계된 북한 내부 통신원들의 전언)와 ‘일부’ 평양 시민이 보여준 긍정적 평가(북한 공식매체들의 보도 내용)의 차이도 이런 문제와 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도시의 미시적 비교 연구에서 자료원의 이런 제약을 완화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이론적 자원과 방법(론)을 보강하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제한된 자료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 기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부단한 시도 과정에서 미시적 북한 도시 비교 연구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의 구조적 변동 또는 체제이행의 한 유형적 변이로서 북한체제의 지속과 변화를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서 비교 연구의 방법적 보완문제와 관련해 잠정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비접경 지역 도시에 거주했던 탈북자들을 비교·분석 차원에서 자료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중앙 국가기관의 직할통치 대상인 수도 평양뿐만 아니라도 소재지에만 한정시켜보더라도, 자본주의적 비지(飛地, enclave)경제 부문을 포함한 전연지대(근접)도시로서 개성, 국제무역항을 끼고 있는 산업 도시로서 남포, 군사 도시이자 어항인 해주, 근접 지역의 소규모 물류 중개지와 교통 연결점(노드) 역할을 하는 사리원, 물류·교통의 전국적 요충지로서 평성, 쇠락해가는 대일 무역중개 도시로서 원산, 의류 가내 임가공과 마약 제조·유통의 거점 도시로서 함흥 등 중남부 내륙지역 도시들은 물론이고 국경연선지대에 위치한 강계나 희천과 같은 군수 도시 등의 거주 경력자들을 자료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 도시에서의 거주 경력을 가진 국내 탈북자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이다. 그렇지만 예컨대 자료원의 주관적 가치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국내적 ‘상품사슬’ 연결망을 연구하는 작업에 이들의 경험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³⁹⁾ 이런 접근을 통해

39) 여기서 ‘상품사슬’ 연결망은 도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완성품으로서 상품이나 그 구성부품의 생산지역이나 조립지역, 그리고 도시들 간의 상품 유통의 흐름

북한 도시들의 불균등한 시장적 관계의 발전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접경지역 도시의 시장 활성화나 주민들의 사회정치적 의식 등과 연계된 이행론적 함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도하게 일반화할 소지가 있는 분석상의 오류를 제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⁴⁰⁾

다른 한 가지는 북한 체제이행의 속도와 전개 방식 등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시적인 경험적 지시자를 개발하여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 도시들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주요 분석 대상 도시를 선정해놓고서 이 도시들의 중심지구(구역), 주거지역, 공장이 밀집된 산업지역이나 광장 같은 공동체적 공적 공간의 변화와 같은 도시지리적 공간의 변형 정도를 추적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또 도시들 간에 변형 속도나 형태, 구역 단위의 밀도 변화 등에서 수렴하거나 분기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수도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도시 시장 활성화의 추동력과 관련된 탈북자 자료원의 주관적 평가의 ‘객관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할 수 있다.

구글 어스의 북한 도시 위성사진의 촬영 시차를 활용한 도시 공간의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이나, 북한 지역의 야간 위성사진 촬영자료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지역별·도시별 주민 생활수준의 차이를 추정하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단순한 의미로 사용한다.

40) 이 점과 관련해서 함흥과 평성은 좋은 실례가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함흥은 화학공업과 경공업 지구의 거점 도시에서 의류 가내 임가공과 마약 생산과 유통의 중심 도시로 바뀌었다. 평성은 평양의 관문 도시이자 중서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에서 전국적 시장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했으나, 2000년대 말 국가의 폭력적 개입으로 시장이 크게 위축된 뒤 예전 수준으로 복원되지 못한 상태다. 접경지역 주요 도시들의 ‘시장 주도적 발전’과 이와 대비되는 비접경지역 두 도시의 ‘퇴행적(involutionary) 발전’을 아우를 수 있는 체제이행론적 함의를 불균등 결합 발전의 문제들에 입각해서 밝혀내는 일도 미시적 북한 도시 비교 연구의 주요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

는 방법도 ‘조작적 정의’ 절차를 거쳐 비가시적인 도시의 정치경제적 변화를 경험적으로 지표화하려는 시도이다.⁴¹⁾ 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품시슬 연결망 분석에 입각해서 식량을 포함한 국내 농토산물, 국내산 및 수입산 자재 및 원료와 반가공품이나 완제품의 도시들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해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통해 북·중 교역의 근처에서 작용하는 경제적 지구화가 북한 도시의 시장적 관계의 발전이나 전국적 차원에서 시장의 전일적 지배력의 확대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혀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북한 도시들 간에 불균등하게 형성되는 체제전환의 내적 동력을 비교할 수 있는 유효한 물적 준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도시의 미시적 비교 연구에서 기존 자료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보완적 방법들의 모색은 방법론이나 이론적 자원의 활용과 개발 면에서 학제 간 융합적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또 이런 접근 방식에 입각한 북한 도시의 미시적 비교 연구 작업은 ‘독특한’ 유사 사회주의 독재체제의 한 유형으로서 북한의 정치·경제체제 이행 방식과 관련된 유관 이론의 보완이나 새로운 이론 구성의 기회를 갖게 해줄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더 현실 적합한 북한체제의 변동 전망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 접수: 3월 8일 / 수정: 3월 27일 / 채택: 4월 1일

41) “‘구글어스’로 본 北 국경도시 ... 온 도시에 김일성 동상,” 『데일리엔케이』, 2008.4.4; “북한 장마당 몇 년 새 급속 확장,” 『자유아시아방송』, 2011.4.12; “원산지 재개발 사업 한창,” 『자유아시아방송』, 2011.5.9; 황일도, “야간 위성사진을 이용한 북한 경제 관찰방법론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3호(2011) 참조.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과학백과사전출판사·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 전20권(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4~2005).

박형중 외,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1).

이우영 엮음,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서울: 한울, 2008).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9).

차문석·김지형, 『북한의 공장 및 노동 실태 분석』(서울: 한국노동중앙연구원, 2008)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한울, 2004).

_____,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한울, 2006)

_____,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200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한울, 2007).

2) 논문

노귀남, “여성의 공간경험 확장과 의식 변화,”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서울: 통일연구원, 2010).

노대균, “탈북자의 개인차 요인이 적응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우영, “북한 사회연구 혹은 사회학적 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8권 제1호(2005).

정은이, “북한의 국경지역 시장에 대한 연구: 회령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11월호(2011).

최봉대 외, “북한이탈주민 범의식 사례 연구”(통일부 연구보고서, 2011).

최봉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

적 계층분화,” 『현대북한연구』, 제11권 제2호(2008).
황일도, “야간 위성사진을 이용한 북한 경제 관찰방법론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3호(2011).

3) 기타 자료

“‘구글어스’로 본 北 국경도시… 온 도시에 김일성 동상,” 『데일리엔케이』
(2008.4.4).

“북한 장마당 몇 년 새 급속 확장,” 『자유아시아방송』(2011.4.12).

“원산시 재개발 사업 한창,” 『자유아시아방송』(2011.5.9).

2. 국외 자료

1) 단행본

Goldfarb, Jeffrey C., *The Politics of Small Things: The Power of the Powerless in Dark Times*(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7).

Kleinman, Arthur, *Social Origins of Distress and Disease: Depression, Neurasthenia, and Pain in Modern China*(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6).

Kotkin, Stephen, *Steeltown, USSR: Soviet Society in the Gorbachev Era*(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Li, Huaiyin, *Village China under Socialism and Reform: A Micro-History, 1948 ~2008*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Stenning, Alison et al., *Domesticating Neo-Liberalism: Spaces of Economic Practice and Social Reproduction in Post-Socialist Cities*(Oxford: Wiley-Blackwell, 2010).

Zaslavsky, Victor, *The Neo-Stalinist State: class, ethnicity, and consensus in Soviet society*
(Armonk, N.Y.,: M. E. Sharpe, 1994).

2) 논문

Alexander, James, “Uncertain Conditions in the Russian Transition: The Popular Drive towards Stability in a ‘Stateless’ Environment,” *Europe-Asia Studies*, Vol. 50, No. 3(1998).

- Apor, Peter, "The Joy of Everyday Life: Microhistory and the History of Everyday Life in the Socialist Dictatorships," *East Central Europe*, Vol. 34~35, No. 1~2(2007).
- Ashwin, Sarah, "'There's no joy any more': The experience of reform in a Kuzbass Mining Settlement," *Europe-Asia Studies*, Vol. 47, No. 8(1995).
- Baxandall, Phineas, "Postcommunist Unemployment Politics: Historical Legacies and the Curious Acceptance of Job Loss," G. Ekiert and S. E. Hanson (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ssessing the Legacy of Communist Rul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Brown, David L. et al., "Leading Sectors and Leading Regions: Economic Restructuring and Regional Inequality in Hungary since 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31, No. 3(2007).
- D'Costa, Anthony P., "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 Understanding India's Software Exports," *World Development*, Vol. 31, Issue 1(2003).
- De Melo, Martha and Ofer, Gur, "The Russian city in transition: The first six years in 10 Volga capitals," World Bank working paper 2651(1999).
- Easter, Gerald M., "The Russian State in the Time of Putin," *Post-Soviet Affairs*, Vol. 24, No. 3(2008).
- Glazyrina, Viktoriia, "Krasnoarsk-26: a closed city of the defence-industry complex," John Barber and Mark Harrison(eds.), *The Soviet Defence-Industry Complex from Stalin to Khrushchev*(New York: St. Martin's Press, 2000).
- Kideckel, David A., "Miners and Wives in Romania's Jiu Valley: Perspectives on Post-Socialist Class, Gender, and Social Change," *Identities: Global Studies in Culture and Power*, Vol. 11, No. 1(2004).
- Kim, Annette M., "North versus South: The Impact of Social Norms in the Market Pricing of Private Property Rights in Vietnam," *World Development*, Vol. 35, Iss. 12(2007).
- Kulcsar, Laszlo J. and Domokos, Tamas, "The Post-Socialist Growth Machine: The Case of Hungar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 29, No. 3(2005).

- Kupferberg, Feiwel, "Transformation as Biographical Experience: Personal Destinies of East Berlin Graduates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Acta Sociologica*, Vol. 41, No. 3(1998).
- Ledeneva, Alena, "Blat and Guanxi: Informal Practices in Russia and China,"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50, No. 1(2008).
- Pavlovskaya, Marianna, "Other Transitions: Multiple Economies of Moscow Households in the 1990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94, No. 2(2004).
- Pierson, Paul, "Epilogue: From Area Studies to Contextualized Comparisons," G. Ekiert and S. E. Hanson(eds.), *Capitalism and Democrac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Assessing the Legacy of Communist Rul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 Rasanayagam, Johan, "Informal economy, informal state: the case of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Vol. 31, Iss. 11/12(2011).
- Sambrook, Sally et al., "A Biographical Approach to Researching Leadershi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Processes in a Small Business Context," Bangor Business School Research Paper No. 11/00et(<http://ssrn.com/abstract=1952667>, 2011).
- Shlapentokh, Vladimir, "The Short Time Horizon in the Russian Mind,"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38, No. 1(2005).
- Van der Linden, Marcel, "The 'Law' of 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 Some Underdeveloped Thoughts," *Historical Materialism*, 2007, Vol. 15, Issue 1(2007).

North Korea's Urban Marketization: Analytical Method and Data-Related Problems

Choi, Bongdae(Kyungnam University)

To study North Korea's cities is useful for explaining the implications of urban marketization. As a city is the microcosm where people are constrained by the state power and reacting to it in their everyday practices, a micro analysis of North Korea's cities is suitable for understanding its system-level transformation. Also these cities have their distinctive characteristics embedded in their historical formations. In this context an application of two methods — a contextualized comparison and the framework of 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 — is necessary. This paper argue that on the basis of these methods a reformulation of the multilateral 'state-market-society' relations can be made, which would help to explicate to what degree the state's dominant role can be extended in the urban marketization process.

An in-depth interview with the refugees or questionnaire survey are the principal data collection methods in the studies of North Korea's

cities. The data collected by these methods is useful. However, it should be treated carefully because most of the refugees are ex-residents in the regions near the northern border. It has some biases which reflect geographically specific traits. To solve this problem, the ideas of some methods are proposed in this paper which include an interdisciplinary research on some topics, the application of a quasi commodity chain analysis and the tracing of the transformation in urban physical space.

Keywords: North Korea, city transformation, micro analysis, contextualized comparative method, framework of uneven and combined development, urban marketization, refugee, bias in data collection.